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로 알려주세요.

"교황, 수녀에게 낙태 강요하는 사제들에 눈 감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직자의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서도 수년간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는데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14일 '연합뉴스'가 영국 일간 가디언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성학대 성직자 추적단체 '비숍어카운터빌리티'의 공동창립자 앤 바렛 도일은 13일 로마에서 기자들을 만나 "교황은 혐의를 받는 학대자들을 두둔하는 반복적 패턴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2019년 이후 발생한 10건의 성직자에 의한 성학대 사건에서 교황이 사실상 가해자들의 편을 들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예컨대 예수회 신부인 동시에 저명한 예술가였던 마르코 루프니크 신부가 30년간 수녀 등 수십 명을 성적으로 학대하고서도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고향인 슬로베니아 교구로의 이적이 허용된 게 대표적이라고 도일은 지적했다. 도일은 "교황이 개혁에 진심이 아니라거나 교황청 내 반대에 막혀 있다는 게 아니다. 난 그가 개혁에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내놓은 조처는 별다른 효과가 없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성직자 성범죄 피해자 출신의 활동가 도리스 라이징거는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사상 처음으로 수녀를 대상으로 한 일부 성직자들의 성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맞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황은 낙태를 살인 청부에 비교하며 공개적으로 규탄했지만, 수녀들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성직자들에는 눈을 감았다"면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많은 수녀들이 교단에서 쫓겨나 노숙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교황청은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3년 취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칠레 전직 신부의 성범죄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후안 바로스 주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거센 비난을 받자 공개 사과하고 성비위를 저지르는 가톨릭계 인사들을 척결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2021년에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 처벌을 명문화하는 등 38년 만에 교회법을 개정하기도 했으나, 활동가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도해 도입한 여러 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해 왔다.

판단보다 사랑을(루가 6,39-45 (다))

얼마 전 여동생과 함께 서울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겨울 밤 9시는 꽤나 어두웠고, 매섭도록 추운 날씨였습니다. 동생과 저는 볼일이 달랐기 때문에 동생을 먼저 보내기 위해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운전사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목적지까지 동생을 데려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전사의 얼굴이 시커멓고 흉터가 있는 것이 아주 험상궂고 무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 문을 열고 내리려 할 때 운전사의 큰 손이 저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섬뜩하여 운전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신부님, 이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신부님을 모실 수 있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본명은 마르코입니다."

저는 그분의 겉모양만을 보고 나쁜 사람으로 성급한 판단을 했으나 그분은 오히려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지 마라고 엄히 명하시면서 남의 눈에 든 티를 보고 호들갑을 떨면서 욕하고 자기 눈은 깨끗한 양 여기지만, 실상 자기 앞은 하나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꾸중하십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사정은 개의치 않고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간섭하려 드는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해 버리거나 아니면 나와 똑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강요할 때가 허다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에는 상관없이 "주는 것 없이 밉다"는 식으로 '저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게 인상이 깊지 못하다' 느니 하며 상대방의 용모, 행동거지, 생각 등 모든 것을 노출시켜 놓고 흠을 잡거나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때는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른,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해 주겠거니 하는 우월감조차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 두 개의 커다란 저울을 가지고 사는 듯합니다. 자기의 잘못이나 죄를 계산하는 저울과 남의 잘못을 재는 저울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에게 이로운 저울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주의이며 죄의 근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과 연결되기 쉬우며 이는 곧 죄의 온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웃의 잘못은 나 역시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약한 인간이므로 이웃과 같은 처지에 있었더라면 더 나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그분께 죄인임을 고백하여 용서를 받아 하느님의 자비로운 처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같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고 더구나 악인으로 낙인 찍어 남의 구원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알게 될 때,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웃과 나 자신의 용서를 위해 애덕의 행위를 하느님과 이웃에 바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겸손의 정신은, 잘못이 있는 형제들을 이해해 주게 되고, 그 잘못을 캐지 않고 언제나 관대하게 대해 주며, 그 형제가 하느님의 뜻에 의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남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혹은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남을 판단한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위선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판단은 그분께 맡겨 드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헌 신부-

베네딕트 파인 아트 Photography Gallery 포토그라피 갤러리

사진 클래스 회원 모집 중입니다.

베네딕트 양 작가 | 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문으로 촬영해오고 있으며 약 4,000여점의 풍경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예술대학(AIB)에서 순수 예술 사진을 전공했으며, 다수 사진공모전 입상과 사진 강사, 공모전 심사 위원 등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213.446.7476 | 3500 W. 6th St. #304, Los Angeles CA 90020